



중국정부 최고 영예 '우의상' 수상

-흉부외과 김용진 교수- 10년간 심장수술 등 의료봉사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가 최근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우의상(Award for Friendship)'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과 향후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 중국정부가 수여하는 우의상은 지금까지 수상자가 100명이 채 안될 정도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면서 심장병과 관련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특히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의료봉사활동을 해왔고 중국정부에서도 이를 지켜보며 이번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위상은 물론, 이러한 일들이 양국의 우호증진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수상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퇴임하신 노준량 교수님과 저를 비롯하여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심장내과, 심장소아과 교수님들께서 꾸준히 실천해 온 의료봉사활동을 보고 지난해 흑룡강성에서 저를 추천했었는데 동양인으로서 제가 이례적으로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 중국 인민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받아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상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일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하얼빈 아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동안, 상무회의 축하행사 자리에서 하얼빈시 장밍 상무부시장으로부터 우의상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 타국에서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실천하며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입니까.

- 1990년대 중반에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연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 동포인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내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변대학교 부속 복지병원과 하얼빈아동병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수백명의 심장수술과 수천명의 환자에게 심장정밀검사 및 진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수술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간혹 우리 의료진의 도움의 손길에 감사의 표시로 무릎 꿇고 큰 절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진료와 수술을 받고나서는 자기들이 직접 농사지는 각종 곡물들을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주는 모습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 하얼빈 아동병원에서 심장병어린이를 살펴보고 있는 김용진 교수

▶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년에 7~8번 방문해 평균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International Fellow로서 하얼빈아동병원에서 5명의 의사들을 데려와 우리 병원에서 연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의료지원을 늘리고 한중문화협회나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료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에도 힘을 예정입니다.